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18(월) ~ 2022.4.22(금)

제공일시 2022 04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18(월) ~ 2022.4.22(금)

제공일시 2022 04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구글·메타' 정조준...디지털서비스법 도입한다

- EU가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마련에 합의하여 **27개 회원국과 EU 승인을 받은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IT기업들은 허위 정보나 편파적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거해야 하고, 인종/종교/성/정치성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 광고' 집행도 금지됨
- 이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공개도 의무화되는데,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콘텐츠 노출 외에도 업로드 되는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당국의 검증받은 전문가들과 비영리기구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사 플랫폼의 핵심 자료도 제출해야 함
- **DSA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EU로부터 서비스 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

(블로터 2022.04.25) 최경미 기자  
<https://www.bloter.net/newsView/3022242002>

### 2. '플라스틱 덩어리' 패스트 패션 규제 나선 EU

-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라, H&M 등 패스트패션 브랜드에 대해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남은 재고품의 폐기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함
- EU 집행위는 **올해 중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 규정도 도입할 예정**이며 세계 각국도 미세플라스틱 표준화와 규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 장착을 의무화했고, 영국도 2025년까지 모든 신규 가정용, 상업용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 도입 법안을 만들었음
- 미 캘리포니아주도 미세플라스틱 섬유오염 감소 법안이 제출됐으며 유럽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미세 플라스틱 국제 표준 마련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매일경제 2022.04.19) 전형민 기자  
<https://www.mk.com/article/newspaper/03/0304052019ae-20220402>

### 3. 영국, '기업 넷제로 의무화' TF 출범...한국은?

- **영국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 '전환 계획 태스크포스(TPT)'가 출범함**
- 영국 주요 기업 임원과 전문가, 규제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TPT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환 계획 사례와 각 사업 부문에 특화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 **TPT는 과학에 기반을 둔 전환 계획을 토대로 세계 최초로 금융 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런 규칙이 영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할 계획을 밝힘**

(세계일보 2022.04.25) 윤지호 기자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507A3040110ae>

### 1. 마크롱 재선 성공...“프랑스, 원전 확대·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전망

-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 마크롱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산량을 200만 대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을 밝힘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전 유턴’으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간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최대 이외에도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광케이블 보급 확대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부가가치부담금(CVAE) 폐지, 세금 납부 시스템 간소화 등 친 기업 정책도 강화 예정

(아시아경제 2022.04.25) 김진호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425132284245>

### 2. “매년 160조 넘게 써야 할 판”...일본 ‘탈석탄’ 청구서 나왔다

- 일본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여 탈석탄 사회를 실현하려면, 2030년부터 연간 17조엔(약 165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
- 일본 경제 산업성은 24일 열린 ‘클린 에너지 전략 심의회’에서 2030년부터 정부와 기업의 연간 투자 규모가 적어도 17조엔 이상이어야 2050년 탈석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는 5~6조엔 규모인 현재 탈석탄화 투자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액수로 경제산업성은 위험도가 높은 초기 단계에 관련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때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힘.

(한경경제 2022.04.24) 정영호 기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424024>

### 3. 마스터카드, 전 직원 보너스를 ESG 목표와 연계

- 마스터카드는 모든 직원 보너스를 ESG 목표와 연계시키고, 고위 경영진에 한정되었던 ESG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지난해 11월 마스터카드는 넷제로 타임라인을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긴바 있습니다. 마에바흐 CEO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배출량, 금융 포용, 성별 임금격차를 보너스와 결부시키겠다”고 밝힘
- 지난 3월 마스터카드는 부사장 이상에 대한 보상과 ESG 이니셔티브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로이터통신 2022.04.19) Thomas White 기자  
<https://www.ouster.com/business/franco/mastercard-link-all-employee-bonuses-esg-goals-2022-04-19/>



### 1. “자본시장 전문가 70%, ESG 공시 의무화 찬성”

- 본시장 전문가그룹 CFA한국협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ESG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시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힘
- ESG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는 '신뢰할만한 데이터 품질 부족', 'ESG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 '기업 간 비교가 어려움' 등이 꼽힘. 이를 극복하려면 **ESG 정보공시에 대한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정보 신뢰성을 위해 ESG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85%가 동의. **검증기관으로는 ESG전문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

(해럴드경제, 2022.4.20) 김우영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200328>

### 2. SK에코플랜트, 버려진 페트병 활용한 ‘꿈의 철근’ 생산 추진

- SK에코플랜트는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철근 대체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FRP) 보강근(가칭 케이 에코바, KEco-bar)**’ 생산에 나선다고 20일 밝힘
- GFRP 보강근 전문기업 케이씨엠티(KCMT)와 친환경 신소재 기술기업 카본화이버앤영 등과 함께 케이 에코바 생산라인 구축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함. GFRP 보강근은 철근으로 불리는 보강근(리바, Reinforcement bar)을 철이 아닌 GFRP로 만든 것. GFRP 소재는 철근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소재로 알려짐. 또 생산과정에서 철근과 달리 고철이나 석회석 등을 사용하지 않아 탄소배출량이 50% 이상 적음
- 특히 SK에코플랜트와 KCMT, 카본화이버앤영 등 3개 업체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GFRP 보강근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 하나인 ‘함침제’를 생산하는 기술 관련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하기도

(동아일보, 2022.4.20) 김민범 기자  
<http://www.donggong.com/news/article/20220420/12999542>

### 3.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기업, RE100 전환 속도

- **기업들의 RE100\* 가입과 장기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은 24일 제주에너지공사-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 동북마을로부터 23GWh 규모의 REC를 구매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REC 구매로 오창 공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50%까지 3배 이상 확대될 예정임
- **LG엔솔**은 지난해 4월 처음 RE100 가입했으며, 폴란드와 미국 미시간 공장은 RE100을 달성했고 중국 난징공장도 올해 안에 100% 달성할 계획을 밝힘
- **현재 한국에는 15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해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가입의사를 밝혔고 LG화학은 국내 기업 최초로 REC를 장기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국민일보 2022.04.25) 황인호 기자  
<https://news.kmb.co.kr/056/view.asp?seq=4524228&code=1121408&grm>

(이코리아 2022.04.25) 윤수은 기자  
<http://www.ikorea.com/news/article/view.html?seq=9521>

(베타뉴스 2022.04.25) 광정일 기자  
<http://www.betanews.com/article/121736>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4.18(월) ~ 2022.4.22(금)

제공일시 2022 04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유럽연합, 광범위한 화학유해물질 억제위해 '규제 로드맵'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화학유해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 따른 규제 로드맵(Restrictions Roadmap under the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이하 '규제 로드맵')'**을 25일(현지시간) 공개
- 공개된 규제 로드맵은 유럽연합(EU) 그린딜의 세부 전략 중 하나인 '무독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towards a toxic-free environment)'의 일환으로, 환경과 사회, 인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사용을 법적으로 일관적이며 억제하려는 목적 아래 마련
- **규제 로드맵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고잔류성·고생물 농축성(vPvBs), 내분비장애(ED), 면역독성 물질, 신경독성 물질, 호흡기염, 특정표적 장기독성(STOT)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식별한 롤링 리스트(Rolling List)를 제시.** 롤링 리스트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명시한 리스트를 뜻. 규제 로드맵에 제시된 롤링 리스트에는 암, 호르몬 교란, 생식독성 장애, 비만, 당뇨, 기타 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범주 아래, 이미 유럽연합에서 제한을 받고 있거나 제한 대기 목록에 올라간 물질을 포함해 새롭게 검토가 필요한 물질이 리스트화 되어 있음
- **롤링 리스트에 올라간 화학물질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되어 2027년 개정 예정인 REACH에 반영된 후 최종적으로 사용을 제한받을 방침**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어 2007년 6월 발효된 EU 규정. REACH 규정에 따라,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면, 유럽화학물질청(ECHA)과 EU 회원국은 등록 서류 검토와 함께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게 됨.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한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대체 물질 개발을 고려해야 함. REACH는 화학물질 규제 대상과 제재 조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데, 2027년 개정에 규제 로드맵의 롤링 리스트를 반영해 엄격히 법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
- EC는 '공개된 규제 로드맵이 무독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해한 화학물질을 세계 최대로 규제하려는 유럽연합 계획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차후 규제 대상이 될 화학물질 목록이 담긴 롤링리스트는 규제 작업에 대한 투명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들이 규제 물질을 미리 파악해 유해성이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
- 유럽환경국(EEB)은 "최대 1만2천여 개 화학물질이 규제 로드맵 롤링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형성 화학물질 제한 목록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
- 화학물질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등은 대규모 유해성 화학물질 제한의 발판을 마련하는 규제 로드맵 공개를 환영. 하지만 일부 산업계, 특히 화장품 업계는 '합성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크림이나 향수 등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

(Guardian, 2022.4.25) Arthur Nesle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2/apr/25/eu-chemicals-plan-targets-over-100-of-dangerous-chemicals>

(Europa, 2022.4.25)  
[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4534](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4534)